

정치문제에 관한 무응답자 중에 여성층 많다

우발적 선심공세에 좌우될 가능성 있어 89. 9. 7. 20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자 무리에 속하는 여성 유권자의 수가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여론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무응답자 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설문에 대해 응답을 한 사람 가운데서 정치적 견해 차이도 드러났지만 무응답자 속에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 무응답자의 무리에서 '향후 선거에서의 여성유권자의 정치성향'의 단서를 잡아 보려는 노력이 김학수 교수(서강대 언론학)에 의해 시도되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소장 김정숙)가 창립 1주년 기념행사로 마련한 제4회 국제학술회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김학수 교수는 "무응답자 무리가 정치적 선거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방향으로 도느냐에 따라 최종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할 때 우리의 정치적 구도는 결과적으로 여성집단의 무응답자 무리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아왔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무응답자 집단에 속한 여성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는



▲ 작년 7월14일에 있었던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창립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한 여성유권자들.

정치적 무관심의 늪에서 끌어내려면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정치와 연결시켜야

것은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들의 특성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정치적 무관심자, 둘째 정치적 미결정자, 셋째 정치적 잠정유보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여성 무응답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무관심자들로 밝혀진 조사가 있었다. 이런 특성

을 지닌 여성 무응답자 무리는 정치선거의 마지막 국면에서 정당정책이나 선거공약을 놓고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매우 우발적인 선심공세 같은 것들에 좌우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

이 많이 포함된 여성무응답자 무리가 생겨난 까닭은 우리의 정치적 이슈가 대부분 국가전체의 사회체제와 관련되고 여성의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활의 영역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여성의 정치적 성향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집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가지가 제안되었다. 하나는 제도적인 면에서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역단위로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을 정치적 이슈로 쟁점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폭력추방·청결·환경보호·소비자보호·참교육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사회운동을 정치와 연결시키는 정치의식·정치연습의 차원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여성유권자들의 교육수준도

향상되고 시간적 여유도 확보되어 대학생 중심의 사회운동세력을 대체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규모 지역단위의 여성사회운동은 한층 조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무관심의 늪에서 벗어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성적인 판단의 주체가 됨으로써 여성유권자가 정치 체제에 중대한 세력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자 편집위원>